

# 비법 버리고 정법 취하세요

치가 그러하듯이 한 사람의 허물을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데도 세상 전체의 숨은 뜻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법이니 남의 허물이 곧 나의 허물이 되는 것이다.

문인 스님은 부석사와 봉정사 주지소임을 맡아 가람을 수호하는데 이십여 년을 바쳤다. 부석사의 무량수전과 봉정사의 극락전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목조 건물 중 원형이 그대로 잘 보존된 고대의 건축물이기에 무엇보다도 잘 보존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보물을 날마다 볼 수 있음은 호사 중의 호사란다. 아침에 눈 뜨면 당우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일과 중 하나로 삼았다.

봉정사는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동승'의 촬영지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곳이다.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한 곳으로 한 때 세계 언론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문인 스님은 봉정사에 머물면서 많은 불사를 하였다. 극락전이 쓰러질 위기에 처해져 있어 해체보수작업에 들어갔다. 그것이 봉정사 불사의 시작이었다. 일반인들은 문화재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해 마뜩잖은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보수를 해주어야 한다. 봉정사는 고대 건축물이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매우 많았다. 고건축물의 수리공사란 '원형복원과 수리공사를 동시에 행하는 작업'이라는 문인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건축에 대한 스님의 깊은 안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했던 그때의 분위기를 알고 싶다고 했더니 '뒤통이 통하, 그냥 열광만 봤지'라고 하신다. 문인 스님은 소문대로 지극히 말씀을 아끼시는 분이다. 봉정사를 방문한 여왕은 방명록에 "조용한 산사 봉정사에서 한국의 불을 봤다"라고 썼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문인 스님은 평생에 아끼는 문구인 '일념만년거(一念萬年去)'를 담은 족자를 선물했다. 일념만년거(一念萬年去)에는 '좋은 한 생각이 만년을 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 찰나의 한 생각도 우리 마음 안에서 생겼다 꺼지는 것이지만 그 생각의 자취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니 '마음을 힘부로 쓰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

스님이 즐겨 보는 경전을 여쭈었더니 "경전에 차별 두는 마음은 없으나 그래도 <금강경>을 꼽을 수 있지"라고 답하신다. <금강경> '제6 정신회유분'의 한 구절을 읊조린다.

"...이러한 까닭으로 응당 법을 취하지 말아야 하며, 응당 법이 아닌 것도 취하지 마라. 여래가 항상 말하기를 '너희를 비구는 내 설법이 뗏목과 같음을 알라'고 하느니, 법도 오히려 응당 버려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법이 아닌 것을 취하겠는가?"

시고 불응지법 불응취비법 여래상설 여등비구(不取法 不應取法 如來常說 汝等比丘)

지아설법 여법유자 법상응사 하황비법(知我說法 如筏喻者 法尚應捨 何況非法)

"부처님은 '당신이 설한 법은 뗏목과 같으니 강을 건넌다면 미련 없이 뗏목을 버리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은데 정법이 아닌 것을 따르거나 취할 이유는 없지요."

정법을 배우고 몸에 지니기도 바쁜 세상에 바른 법이 아닌 것을 뒤쫓을 시간이 어디 있는지는 스님의 경계 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법(法)과 비법(非法)의 구별이 점차 모호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비법이 유행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지혜롭지 아니하면 비법을 정법으로 이해하기 십상이다. 이에 대해, 문인 스님은 자신의 생각과 행위가 오계(五戒)에서 벗어나는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된단다. 스님은 세상에서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사람의 욕심'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 앞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모든 특권이 보장된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시면서 이미 물질에 대한 집착이 헛된 것임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낮게 엎드린 앉은뱅이책상이 소탈한 스님의 성품이며 소박한 삶을 살아온 스님의 내력을 훤히 말해주고 있다.



**문인 스님은...**  
해인사 백련암에서 정도원 스님을 은사로 득도. 해인사강원 대교과 졸업. 고운사, 부석사, 봉정사 주지 역임. 조계종 총무부장, 중앙종회 부의장, 종교인연합회 부회장 역임. 지금은 대구 세방골에 위치한 범방사에 주석하고 있다.

건들바람이 차마에 매달린 풍경을 울리고 간다. 풍경은 참지 못하고 그만 '땡그렁 땡그렁' 소리를 낸다. 풍경소리가 귀로 온 것인지, 귀가 소리 나는 데로 간 것인지 아직은 모르겠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한국불교 승려열전

## 연재를 시작하며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깨달음과 역사>라는 책이 있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웅 스님이 지은 책인데, '깨달음과 역사'라는 제목이 출현한 과정이 흥미롭다. 스님은 '보살'이라는 아주 흔한 개념에 대한 대단히 독특한 해석에서부터 이 제목을 도출했다. 그 연유를 간추려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보살 곧 '보리살타(보디사트바)'에서 보디(bodhi)는 '존재를 영기적으로 이해하는 깨달음'이다. '사트바(sattva)'는 중생(衆生)이라는 말로서 모든 삶과 역사를 의미한다. 특히 이 중생이라는 말은 '역사'라는 말로 치환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살이란 깨달음과 역사의 합성어, 통속적인 표현으로는 '깨달음의 역사화' 혹은 '역사의 깨달음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느 정도로 정확한 이해나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것에 공감하는 정도는 독자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 스스로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깨달음의 역사화' 다시 말해서

가?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많은 이들이 답을 내놓지만 깨운하지는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이 글은 그런 고민에서부터 시작한다. 어디에서 서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 어디에서 서 있는지 살펴보고, 적어도 주위의 온갖 이야기는 불교는 훌륭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쩌서 훌륭한가? 그렇게 훌륭한 불교가 오늘 어쩌서 요모양 요 꼴이란 말인가?

시작부터 설부터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이렇다. 전통문화재의 70%를 만들어낸 불교라면, 그 정신적 삶의 70% 역시 불교가 만들어 내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불자수가 전체 인구의 70%가 아니라 30%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정신의 30%만 잔재로 남았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역시 단순 계산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적어도 40%는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렸거나 모른 채하고 있는 것일 게다.

이제 그 잃어버린 혹은 모른 채하고 있는 40%를 되살리지는 못하더라도 기억해보고 싶은. 혹은 아느냐? 무덤 속에서 일어서서 걸어 나오는 자라도 있을지. 또 설부터 말하자면, '불교의 본



원호 스님.

## 담고 싶은 스님들의 삶... 그 행간 걷기

'이상을 지향하는 고단한 삶'이 좀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새로운 글은 내가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담고 싶은 삶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그리고 기존의 왕조사(王朝史) 중심의 역사관, 승리한 자들의 역사관에 파묻혀버린 이 땅의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이 글의 소재로 등장하는 스님들은 적어도 자신만의 안목을 추구하는 삶을 갈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분들이다. 한국사 교과서를 펼쳐보는 이들은 대개 두 가지 부류의 스님들을 만난다. 위대한 스님, 아니면 요사스러운 맹초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교과서 속에 서술되는 스님들의 진면목 혹은 그릇된 면목을 얼마나 고민하고서 만나는 것일까?

부정하고 싶은 이들이 많겠지만, 사실 한국의 역사는 한국불교의 역사이기도 하다. 단순히 전통문화재의 70% 정도는 불교문화재라는 말에서도 이것은 확연히 증명되는 사실이다. 하지만 또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통계조사를 따라가 보면, 2005년도 종교인구 통계조사의 결과는 종교인구 중의 절반 이상 아니 2/3 가까운 이들이 기독교 신도라고 말한다. 지난 역사에서 불교는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신앙이자 삶이었지만, 현재의 역사에서 불교는 그저 과거의 흔적에 기대어 잔존하는 '기억의 일부'일 뿐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왜 그런

다'를 쫓아가는 자들을 외면했던 스님들의 역사 곧 중생의 탐욕이 오늘의 시류를 만들어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역사 속에서 깨달은 자의 '모르쇠'는 치열한 구도의 삶을 낳았지만, 탐닉하는 중생의 '모르쇠'는 외면과 방기와 삶과 스님들의 외곽을 낳았다.

원광은 왜 수나라 황실의 칙사대접을 '모르쇠'하고 신라로 돌아왔을까? 만해는 왜 난 데 없이 '취처(娶妻)'를 주장했을까? 퇴옹은 왜 산중에 고고하게 앉아 3000배를 요구했을까? 신돈은 왜 팔자를 못 고치고 요승이 됐을까? 세달사 승려 공에는 왜 왕이 되었고, 또 왜 폭군이 되었을까?

굳이 '깨달음의 역사화'라고 말할 필요까지도 없을 것이다. 우리네 불교도들, 특히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사부대중들은 그 공선 서원(誓願)의 첫머리에 "중생이 가이 없더라도 제가 반드시 모두 구제하고야 말겠습니다(衆生無邊誓願度)"라고 맹세한다. 하지만 그 서원의 굳건한 외침 속에 무언가 빠져 있다.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모른 채하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닐까? 이제 외면했던 그것을 찾아서 스님들의 행간을 향해 걸어보기도 하자.

■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H0+ 여름을 시원하게~ 삼베 명석(카펫)로 cool하게~

## 네츰컬 삼베 수제 명석(카펫)

오직~ 현물상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농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 한국

■ 삼베 수제 명석(카펫)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드기,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 2.수분 흡수 및 발산 (연의 42배)
-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 5.차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 6.전파 차단 기능 (86% 차단)
-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선의 비투과성

■ 삼베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商標)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물상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